경찰청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7. 28.(목) 조간	누리망·방송	2022. 7. 27.(수) 12:00
담당 부서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책임자	총경 이병귀 (02-3150-1605)
		담당자	경정 이여정 (02-3150-0235)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 801명 검거(구속 53명)

- 위장 수사 시행 후 9개월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범 총 187명 검거 -

-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에 가담한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집중단속 4개월(3. 1.~6. 30.) 동안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53명을 구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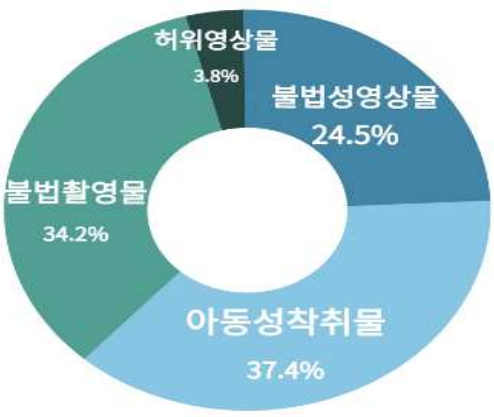
* 중점단속 대상: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

2022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범행유형별, 피의자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았다.

전체 검거 사건(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 37.4%)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 34.2%)가 가장 큰 비중(71.6%)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 순으로 검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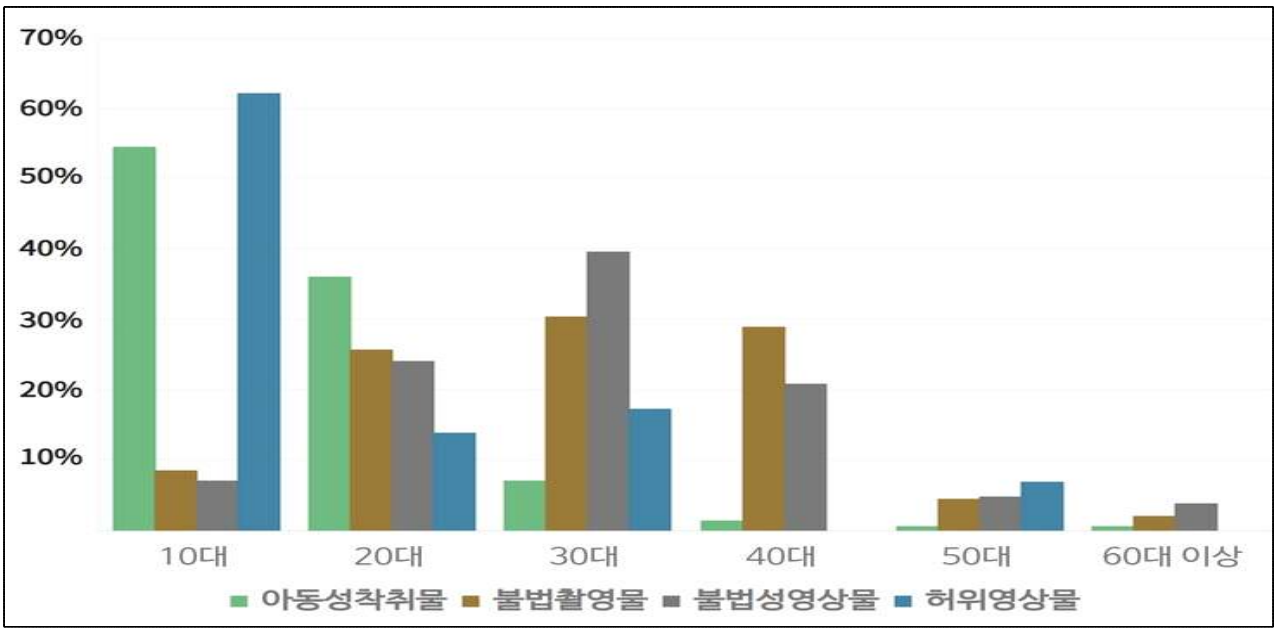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 (기간: 2022.3.1.~6.30. / 킥스(KICS) 통계)

구분	총계	아동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불법 성영상물
검거 건수	786건	294건	269건	30건	193건
검거 인원 (구속)	801명 (53)	295명 (24)	286명 (16)	26명 (2)	194명 (11)



피의자 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와 허위영상물 범죄를 가장 많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서, 30～40대 피의자는 불법촬영물·불법성영상물 범죄에서 범행 비중이 높았으며, 50대 이상부터는 모든 범죄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범죄유형별·연령대별 피의자 비중 분석〉 (2022. 3. 1.～6. 30. / 킥스(KICS) 통계)



한편,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9개월 간(2021. 9. 24.~2022. 6. 30.) 총 147건의 위장 수사를 하여 피의자 187명(구속 18명)을 검거하였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 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구속 9명)을 검거하였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106명, 56%)를 차지하였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하였다.

〈최근 9개월간 위장 수사 현황〉 (기간: 2021. 9. 24.~2022. 6. 30.)

구분	총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성착취 목적 대화
		제작·제작알선	판매·배포·광고	소지·시청	
전체 (구속)	187명 (18명)	7명 (5명)	106명 (11명)	73명 (1명)	1명 (1명)
신분 비공개수사 (구속)	86명 (9명)	5명 (3명)	81명 (6명)	-	-
신분 위장 수사 (구속)	101명 (9명)	2명 (2명)	25명 (5명)	73명 (1명)	1명 (1명)

※ 범죄자들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성 착취물 제작·판매·소지 등이 결합하였더라도 가장 중한 위반유형을 위주로 중복 없이 집계하였음

앞으로 경찰은 남은 단속기간(~10. 31.) 동안 기존의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하여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수칙

- 친구 등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여 그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타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
- 상대방이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해 오는 경우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할 것

<학부모 대상> 사후대처 방안

- 자녀가 범행에 연관되었을 경우(가해자 또는 피해자), 자녀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야단치지 말고 전문 상담 기관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위장 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하여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주요 수사사례

[부산 사이버] 텔레그램 대화방 내 아동성착취물 유포 피의자 검거

'20. 6월~'21. 7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성영상물 104개 유포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4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피의자 3명 검거(구속 2)

[충북 사이버] 발달장애인 대상 아동성착취물 제작·협박 피의자 검거

'21. 8. 21.~25.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자 소년에게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알몸 영상 등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 제작, 추가 알몸 영상 전송요구에 응하지 않자 유포 협박한 피의자 검거(구속)

[경기북 사이버] 준강제추행 후 불법촬영물 제작, 유포 피의자 검거

'17. 4월~'20.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및 추행 장면을 촬영하여 불법촬영물 7개 제작,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 등 총 2명에게 유포한 피의자 검거(구속)

[경기남 분당서] 스페인 여군 대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피의자 검거

'20. 9월경 사회 관계망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2. 2월경 이성 문제로 언쟁 후 피해자를 도용한 사회 관계망 계정을 개설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 및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검거(구속)

[충북 사이버] 불법촬영물 등 불법성영상물 유포사이트 '꿀ㅇㅇ' 운영 총책 검거

'16. 10월~'20. 1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꿀ㅇㅇ'을 개설·운영하면서, '사우나 몰카', '치마 속 몰카' 등 불법촬영물 및 약 3만 2천 개의 불법성영상물을 유포한 운영 총책·운영자 2명 검거(구속 2)

[대전 사이버] 전 여자친구의 허위영상물 반포 및 스토킹 피의자 검거

'22. 4월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신체에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편집·제작 후 사회 관계망에 게시하여 반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차례 문자전송, 전화 발신한 피의자 검거(구속)

[경기북 남양주북부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피의자 검거 보고

'21. 8. 5.~16. 사회 관계망에 얼굴이 공개된 피해 여성(성인 5, 청소년 2)의 약력 사진을 이용하여, 타인의 알몸 사진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 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 검거(구속)